

재혼위해 두딸 거짓 사망신고

1명 고아원·1명 행방불명 확인...유기 가능성 수사

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재혼하기 위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정진복(33·무직·광주시 광산구 월곡동)씨를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장성군 남면 면사무소에서 셋째딸 다림(2)양이 뇌출혈로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낸 뒤 지난 1월 또 다시 둘째딸 영주(6)양도 심장병

으로 숨졌다고 거짓으로 사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마을 이장에게 "이혼서류 작성에 필요하다"고 속여 도장을 받아다 두 딸의 사망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이용했으며, 자신의 호적에서 두 딸의 기록마저 없애려고 지난 2월 자신의 호적을 장성군 남면에서 광주시 북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. 정씨는 경찰에서 "지난해 4월 가정불화로 백아무개(28·여)씨와 이혼한 뒤 재혼하는 데 두 딸

이 걸림돌이 될까봐 이런 일을 가질렀다"고 말했다.

정씨는 지난 2월 두 딸을 전남 목포의 누나집과 전주의 친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으나, 두 딸 모두 행방불명됐다가 영주양은 목포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됐고 다림양은 현재까지 있는 곳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. 경찰은 정씨가 두 딸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다림양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.